

초대시

정문석 집사

추수 감사절 연가



이제 바야흐로
북한강 찬 바람이 불고
별살이 작아지는 먼 들녘에
들국화 은쟁이 마지막 화장하는
늦가을 추수 감사절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일찍부터 찌는 듯 더운 것이
참으로 잔인한 폭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겨운 장마가 와도
홍수 난리가 나도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배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양식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저 많은 곡물과 과일과 채소를 만들어
악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보살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동안 추수를 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바빴습니다
눈물 없이는 밤을 지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거둔 곡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오니
모래알만한 것일지라도 받아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이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받아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런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어
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문석 시인 프로필

- 1988년 전남 강진 출생
강진농고,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 수학
YMCA 주최 고등부 백일장 석류 시장원
고등학교 시절 시집 '요람' 발간
시집 '사랑하는 사람들', '발간'

- 월간 '한국시'에서 무지개 농장 외 2편 당선
대한교과서(주) 위원
도서출판 한양 대표
가평순복음교회 집사

손양원 목사, 문준경 전도사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CTS 기도원정대

'조선의 작은 예수', '사랑의 원자탄', '한센인의 아버지', 이는 모두 두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산돌 손양원 목사(1902~1960)를 지칭하는 별칭이다.

손 목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마치고 한센병환자 돌봄수용소인 전남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한센병환자의 상처에서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1940년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투옥돼 광복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6·25전쟁 중에 피난을 가야 한다는 주위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고 한센인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하면서 신앙인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 그는 1995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상했다.

손 목사의 순교를 기리기 위한 순교기념관은 애



양원과 역사박물관이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신흥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대한민국기도원정대 200여 명의 대원들은 손양원 목사 기념관 앞에서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던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이 땅의 복음전파", "분단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 기도원정대 특별 강사로 초청된 정영교 목사(양분교회)는 "한국전쟁 66주년을 맞아, 분단된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고 한국교

회와 성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하나 님께 간구하며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참석자들은 정 목사의 말에 "아멘, 할렐루야"로 답했다.

현 정세와 시국에 대한 기도도 이어졌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 '국가 위기 극복', '동성애 분제와 이슬람 침투'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겨내고 고비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경과 성령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다.

사설

나라가 위태하다, 구국기도로 하나 되자!

오늘의 국가적 대 혼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상기 해야 할 최우선 주님의 명령과 당부는 바로 '하나 되라' (요 17:11,21,22)는 주님의 간곡하신 기도 속에 있다. 시국을 보는 관점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시국을 해결하는 해법에 관한 의견도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지한다면, 이처럼 위급한 혼란지경에 이른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가야 할 지혜들과 방책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먼저 성경 말씀·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고, 주님이 어떤 어떻게 하였을까를 묵상하면 나올 지혜들이요 해결책들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하신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입헌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아래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그 한 말씀이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국가적 혼란 상태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대한민국은 입헌 자유민주 국가이다. 모든 법원과 비리와 사회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자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국법질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어떠한 폭력과 기만과 정략적 술책과 사회혼란 세력의 계략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른바 야권의 대권 주자, 또는 당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선동을 감행하고 있다. 합법적 헌법 절차와 국민주권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에 대해, 불법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겁박하며 시위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국법을 짓밟는 위헌적 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숨김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속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숨겨 두었던 한 여인과 그 숨은 배우 세력들의 부패·부정·비리들도 검찰의 수사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으며, 법의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반수의 국민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도

처벌 될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이 거리거리로 물러나와 분노를 터트리자 이에 편승하여, '대통령 하야'를 몰아붙이는 언행들은, 그 자체가 먼저 국법 유린이고 법외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언론의 무차별의혹성 보도들이 결코 법률적 확증은 될 수 없음을, 말없는 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정 속에 번영해야만 한다. 세계 선진 20대국이라는 이른바 'G20'의 국위를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언제든지 남한을 "불바다"의 처참한 패자로 만들 수 있는 북핵 폭압자 김정일의 도발이 압박해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신앙의 발전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상호방위 체제 아래서 가능하다. 만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잠시라도 유고 상태가 된다면, 과연 어떠한 국방 하점이 발생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이 여러 허물과 과오와 불법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나든 탄핵소추를 당하든, 모든 절차는 적법 절차에 따라 한치의 헌법질서 교란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주여, 나라의 국법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바라는 소원이 주 안에서, 먼저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 다윗왕의 기도를 다시 되살려 주님께 드려야 한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어 지체하지 마소서.'(시 40:13-17)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거기에는 좌익·종북 불순분자들의 획책도 섞여 있다.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 아버지인 최후 기도처럼, "이 나라를 불순한 세력의 궤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이어가야 할 때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목회자 세미나 기획안

각 교단의 교세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 목회자 양성은 영성과 인성, 영적 진단과 처방 등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목회현장으로 내몰리며, 목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 못하는 난항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성 지도자들의 교회 내 각종 금융 비리와 절제되지 못한 사생활문제는 교회 문제를 떠나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개신교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새롭게 출발하는 목회 초년생들과 이제 겨우 어려운 고비를 넘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전파라는 목회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늘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기성 목회자들의 자성과 회개, 그리고 뚜렷한 목회관 없이 성공목회라는 세상과 야합한 신기루를 염원하며 목적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목회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목회자상과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목회에 힘과 용기를 주고자 장교 끝에 다메섹순복음교회에서 목양신문사와 공동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참 목회자 상과 목회자들의 새로운 이정표

- 1.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스
마 13:35 천국은 창세 전에 사람들에게 감춰져있어, 천국이 드러나도록 비유를 잘 해석해야 천국이 발견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감춰진 채로 남게 되고, 깨닫는 자에게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춰진 만나,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양식,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3.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속히 될 일을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곧 감춰진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은 공간이동이 아니라 육적차원에서 영적차원의 것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만 이를 깨닫고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양모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5.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지혜, 능력, 실력, 마음됨됨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6. 독생자의 영광의 핵심은 우리 인격과 능력과 실력이 완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7. 성경전체요약 강의: 창세기-계시록까지



개강 2016년 12월 8일(목)

- 시간: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한다.
· 강사: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031-765-2791, 010-6202-6312